

문화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 꽃 피우다

'2012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 19~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서 열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2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린다.

'아시아의 길-문화의 꽃이 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첫번째 행사였던 지난해보다 예산(15억원)을 대폭 늘리고, 행사 내용도 다변화했다.

주최측은 "이번 주제가 과거 실크로드, 차마고도, 페이퍼 로드와 같은 아시아의 '길'을 통해 만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도시 광주에서 다시 만나 서로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아주간 행사는 한·중·아시아 문화장관회의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위한 각종 위원회와 워크숍, 전시와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이벤트다.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만나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20~21일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다. 특히 올해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20년이 되는 해라 더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등 6개국 문화장관이 참석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한 한국과 중앙 아시아 간 협력강화에 대한 '광주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연·전시 보러 오세요

'꿈꾸는 마마이'(19일 오후 4시·8시 빛고을시민문화관)는 카자흐스탄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이다. 극작가 김광림이 글을 쓰고 윤정섭씨가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관객과의 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2 아시아문화주간' 기자 간담회가 9일 아시아정보문화원 준비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워크숍

설화 바탕 인형극·전통 춤 공연 등 풍성

통을 위해 열린 무대를 지향한 연극으로 '신화열차'라는 무대와 다양한 인형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아시아 전통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하나되는 아시아'(21~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는 올해 11개국 17개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전통실내악단'의 연주와 인도네시아, 부탄 등 14개국 전통무용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전 등록(02-320-8815)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5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려 호

평을 받았던 '페이퍼 로드, 지적 상상'의 길' 전시는 26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다. 한국·중국의 대표 그래픽 디자이너 33명의 포스터 100여점을 만날 수 있는 '포스터의 숲을 만나다'가 전시 컨셉이다.

27일부터 9월1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전시는 서울 대안 공간 루프, 말레이시아의 12아트스페이스 등 11개국 창작공간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행사다.

그밖에 아시아 8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2회 아시아청소년문화축전도 열린다.

▲포럼·각종 회의 풍성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2 아시아문화포럼'(20일~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이 눈길을 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은 시인과 아오키 타모즈 전 일본문화청장관이 '아시아는 시작이다', '금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아시아의 창의성', '창의도시와 네트워크', '창의도시 광주의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또 제2차 아시아전통음악 및 무용 아카이브 워크숍과 위원회 회의,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 본선 심사 등도 열린다. 문의 02-3704-34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탈리아 스테인드 글라스·모자이크 워크숍

내일부터 15일까지

화순 인스나인 에서

이탈리아 스테인드 글라스와 모자이크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워크숍이 열린다. 이탈리아의 전통 공예 기술을 활용, 남도만의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이며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디자인전문회사 인스나인은 11일부터 15일까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에서 '제3회 이탈리아 전통공예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이탈리아 전통 공예 장인을 초청,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면서 지역 공예산업으로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 작가 12명이 직접,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해 나무와 대나무를 그려 넣은 6폭 병풍을 만들어보는 행사도 열린다.

워크숍에서는 또 전 세계 유일의 모자이크 전문 교육·연구기관 프



'나비와 대나무' 6폭 병풍

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를 졸업한 이미림 작가의 모자이크 작품과 이탈리아 현지 공방에서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1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는 화려한 색채감으로 생활 소품에서부터 건축의 장식용 마감재, 공공미술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접목, 응용할 수 있는 공예인데다, 국내에서는 희소성도 높아 산업화로 인한 부가 가치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유복 인스나인 기업부설 디자인 연구소장은 "광주·전남 공예 산업의 영역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공예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스나인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품 공급 업체로 선정돼 박태우 작가의 '참새' 시리즈가 들어간 찻잔 세트를 납품하는 등 디자인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DJ 파란만장 일대기 담은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 광주 관객 맞는다

14일 5.18기념문화센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가 처음으로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김 전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지난해 추모공연으로 제작됐던 '인동처럼 살리라'는 지금까지 목포와 여수에서 공연됐었다.

전남도립국악단과 어린이국악단 등 100여명이 출연하는 이번 작품은 일상적인 인물의 일대기가 아닌, 제 3자적 관점에서 이 땅의 자유와 민주, 인권, 평화의 꽃을 피워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시대별로 파노라마식으로 조망한 국악뮤지컬이다.

예술감독은 박승희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가, 시나리오는 오페라 전문 극본작가인 이강운씨가 썼다. 안무는 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공연 안무를 맡았던 이영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

일제, 연출은 이재성 경기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해방둥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삶의 지표로 삼았던 세친구가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지쳐 다른 길을 걷다가 한 친구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2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거친 시대가 만들어 준 소명' '어둠의 진창에', '시련의 꽃 인동초', '영광의 시대'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65세 이상, 10인 이상 단체 7000원, 초중고생 5000원.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백서 2011' 발간

주요 추진사업 등 담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이 2011년도 문화예술 분야 사업현황과 성과를 정리한 '광주문화재단백서 2011'을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발간사, 2011 발자취, 재단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사업 등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문화재단 설립취지 및 2011

발자취'는 광주의 문화정책 기조와 사업방향 등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 섹션은 지난해 추진한 50여개 주요 사업을 창의적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총 10장으로 구분, 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향후과제 등을 실고 있다.

부록에는 재단 조직·인력·시설·예산 등 기본 현황과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주요축제 프로그램 현황, 사업

일지, 사진으로 보는 노마드 탐방기 등 지난 1년 간의 발자취를 담았다.

백서는 공공도서관, 대학 및 문화시설 등에 배포, 지역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참여시민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의 참여작가인 호주 출신 크레이크 윌시와 일본 출신 히로미 탕고의 작품 제작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작가들은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한편, 집에 대한 추억이 담긴 전, 현 등등을 기증 받아 스크린 등 작품을 만들게 된다.

참여하려면 14~15일 오전 10시부터 비엔날레 사무실에서 열리는 인터뷰에 참석하면 된다. 문의 062-608-4222. /김지을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 광주의 중심, 문화의 랜드마크
- 지역최초, 최다관의 진정한 멀티플렉스
- 편리한 주차공간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

- 10개 상영관, 1,639석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영화관
- 넓고 편안한 좌석, 베이비룸 설치(8.9.10관)
-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시사회 등 다양한 행사 유치
- 전남 서부권 교통의 메카
- 멀티쇼핑몰 내 위치

2012 SUMMER

2012.5.13 PM 5:30

한강에 지체들이 떠올랐다

연가시

성당원연결 병방-(1번 or 2번)-0번

☎ 1588-7941

하남점

영도시영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1관 도둑들/세미의 어드벤처2
 2관 도둑들
 3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관 세미의 어드벤처2 황제팬권 쎄이와 숨이 다크 나이트 라이즈
 5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6관 세미의 어드벤처2/락 오브 에이지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7관 도둑들/아메리칸파이
 8관 나는 왕이로소이다
 9관 아이스 에이지 4/나는 왕이로소이다
 10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매일매일 조조엔 선착순30명 팝콘이 공짜!
 ★메가박스 회원 라바까지 1+1 행사★
 평일 일과제이드 푸른이벤트 할인-이벤트무휴-영외무휴 !!
 호남최대주차장 / www.megabox.co.kr

성당원연결 병방-(1번 or 2번)-0번

☎ 1588-7941

상무점

영도시영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1관 도둑들
 2관 세미의 어드벤처2/나는 왕이로소이다
 3관 나는 왕이로소이다
 4관 도둑들
 5관 도둑들/황제팬권 쎄이와 숨이
 6관 도둑들
 7관 아이스 에이지 4/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다크 나이트 라이즈
 8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9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10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상무점) 리뉴얼 오픈기념! 매일매일 팝콘이 공짜!
 ★메가박스 회원 라바까지 1+1 행사★
 평일 일과제이드 푸른이벤트 할인-이벤트무휴-영외무휴 !!
 www.megabox.co.kr